우크라이나 농업 현황

차 원 규*

1. 일반 현황

우크라이나(Ukraine)는 유럽의 동부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중앙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와 중동지역, 그리고 유럽을 연결해주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요충지 역할을 한다(성진근 2013). 아래 〈그림 1〉과 같이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러시아, 몰도바, 루마니아, 벨라루스 등의 국가와 국경을 인접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전체 국토 면적은 60만 3,500㎢로, 남한의 6배에 달하며, 전체 국토면적 중 95%가 평지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국토의 80%는 농업 경작이 가능한 지역이다. 농업 경작이 가능한 지역 중 60%는 비옥한 흑토(체르노젬) 지대이다. 전 세계 흑토 지대 중 약 25%에 해당하는 우크라이나의 흑토 지대는 '유럽의 빵 바구니'라는 별칭을 가질 정도로 높은 곡물 생산성을 갖는다(박정호 2011).

우크라이나의 수도는 키이우(Kyiv)이며, 이외 주요 도시로는 도네츠크(Donetsk), 드니프로(Dnipro), 하리키프(Kharkiv), 르비브(Lviv), 오데사(Odessa) 등이 있다. 우크라이나의 인구는 4,192만 명으로 크게 우크라이나계(77.8%), 러시아계(19.7%)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 벨라루스계, 몰도바계, 불가리아계 등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종교는 우크라이나 정교(67%)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가톨릭(12%), 개신교(2.5%)가 뒤를 잇고 있다(외교부 2020).

기후는 전반적으로 대륙성 기후를 보인다. 대서양 영향권으로 비교적 온난하고 습한 기후가 관찰된다. 넓은 영토를 보유한 우크라이나는 동부, 서부, 남부, 북부의 지역별 기후 차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wkcha@krei.re.kr)
본고는 차원규·이성은의 『농림업 분야 중점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수립(4차년도): 우크라이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를 발췌하여 요약·정리한 것임.

가 뚜렷하고, 하절기·동절기 등 계절별 기후의 특징도 상이하다. 우크라이나의 평균기온은 여름의 경우 15~26℃(최고기온은 39℃), 겨울의 경우 5~10℃로 나타나고 있다(외교부 2020).

〈그림 1〉 우크라이나 지도

자료: Kiev. (https://ko.maps-kiev.com/키예프-우크라이나-지도).

우크라이나는 1991년 12월 독립 후 1996년 6월 공화국 정치체제의 단일 국적과 삼권 분립 및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내용의 헌법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이원집정제로 삼권 분립 법치주의를 준수하며,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국민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5년 임기를 갖고 연임할 수 있다. 국가 예산안의 심의 및 국정 감독의 주요 기능을 갖는 우크라이나 의회는 단원제로 450명의 의원이 있으며, 4년 임기이다(외교부 2020). 최고 행정기관으로 정부 각료 회의(Cabinet of Ministers)가 있으며, 총리, 부총리(2명), 각 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된다. 2019년 기준 총리실을 비롯한 국방부, 외교부, 재정부, 보건부, 교육과학부 등 총 16개의 부처로 이루어져 있다(외교부 2020).

과거 제5대 대통령인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러시아와 관계 강화 선언에 따라 친서방 세력을 갖고 있었던 일부 우크라이나 시민들 사이에 대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촉발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2014년 유로마이단 운동(친서방 대정부 시민운동)이 발발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후 우크라이나에서는 크림반도 러시아 합병 관련 주민투표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크림반도는 러시아에 합병되었다. 친(親)러시아 성향의 우크라이나 동부 2개 주에서 분리주의 무장세력과 정부군과 내전이 발발하고, 이후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동부 2개 주 간 2차례의 민스크 휴전협정(2014년 1차, 2015년 2차)이 체결된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군-반군(친러-친서방주의 세력) 간 내전 및 갈등이 지속되었다(주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 2021a).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둘러싼 강대국과의 대립 및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서방과 러시아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친(親)서방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反)러 친(親)서방 정책으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EU 통합 및 미국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러시아와의 관계는 얼어붙게 되고, 러시아와의 우호 협력 조약 및 협정을 종료 또는 중단하기까지 이르는 실정이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특별 군사작전 선포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파괴되고 있다.

2. 경제 및 사회 현황

우크라이나는 1991년 독립 이후 불안정한 정치 및 경제적 상황을 겪고, 1998년 러시아 외환위기 영향으로 한동안 경기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쿠츠마 대통령이 통화안정 및 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환율 안정, 국제신용도의 상승 등 전반적인 경제 안정화 단계로 전환되었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EU 및 WTO 가입 시도 등 시장경제 달성과 자본주의 체제 편입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가속화된다. 하지만 2014년 친(親)러 갈등과 우크라이나 내전 등으로 인해 국가 경제에 타격을 입게 되며, 국제 금융 지원을(IMF, EU 등) 받는 등 국가 경제 회생을 위한 시도가 이뤄진다(외교부 2020).

우크라이나의 경제기반은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천연자원에 있다. 우크라이나는 제8대 철강 생산국으로, 철광석, 망간, 티타늄, 니켈, 흑연 등 세계적인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산업 구조는 농업 12%, 제조업·광업·에너지·건설 등이 29%, 서비스가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철강·우주·항공·조선 분야 등은 세계 10위권, 연간 곡물 수출량은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외교부. 2020).

2014년 기준 우크라이나의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1,306억 달러로 나타났으나, 크림반도 사태와 내전으로 인해 2015년 GDP 905억 달러, 2016년 934억 달러로 극심한 경기 침체를 가져오게 된다. 동 기간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2014년에는 -6.6%로 나타났으며, 2015년 기준 -9.8%를 기록하였으나, 2016년 이후 회복하는 추세를 보인다. IMF, EU, 세계은행 등 국제사회의 금융 지원을 통해 2016년 이후 우크라이나 경제 상황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였다〈표 1〉.

〈표 1〉 주요 경제지표 추이(2016~2019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명목 GDP (억 달러, USD)	1,306	909	934	1,122	1,212	1,504
1인당 GDP (달러, USD)	2,963	2.028	2,092	2,525	2,742	3,592
실질 GDP 성장률 (%)	-6.6	-9.8	2.4	2.5	3.2	3.2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바탕으로 재구성

2016~2020년 우크라이나의 수출액과 수입액을 보면, 2016년 기준 수출액은 363억 6,000만 달러에서 2019년 500억 6,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2020년에는 493억 달러로 성장추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입액의 경우 2016년에 392억 4,000만 달러에서 2019년 약 607억 8,000만 달러로 수입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액과 비슷한 양상으로 2020년에 이르러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2〉.

〈표 2〉 수출입액 추이(2016~2020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출액	36,360	43,275.8	47,335	50,060.3	49,386
수입액	39,242	49,509.7	57,187.6	60,783.7	56,095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경제 관계는 1992년 2월 수교 이후 투자보장협정('97), 이중과세방지협정('02), 항공협정('03), 세관협력협정('04), 외교관 여권사증면제협정('06), 무역협정('96, 개정 '08), 원자력협력협정('07), 문화협력협정('09), 사증면제협정('14) 등을 체결하였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양국 간 무역 현황을 보면 한국의 우크라이나 주요 수출품은 승용차, 아연도강판, 화장품, 합성수지, 타이어 등으로 전체 수출액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도에 이르러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표 3〉.

〈표 3〉 한국의 대(對) 우크라이나 교역 현황(2016~2020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출액	222	259	341	349	309
수입액	472	539	387	456	572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반면 한국의 우크라이나 주요 수입품은 식물성유지, 곡류, 기타 정밀화학원료, 철광, 기타 난방 및 전열기기 등이며 수입액은 2018년 하락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4〉.

〈표 4〉 한국의 대(對) 우크라이나 주요 수입품목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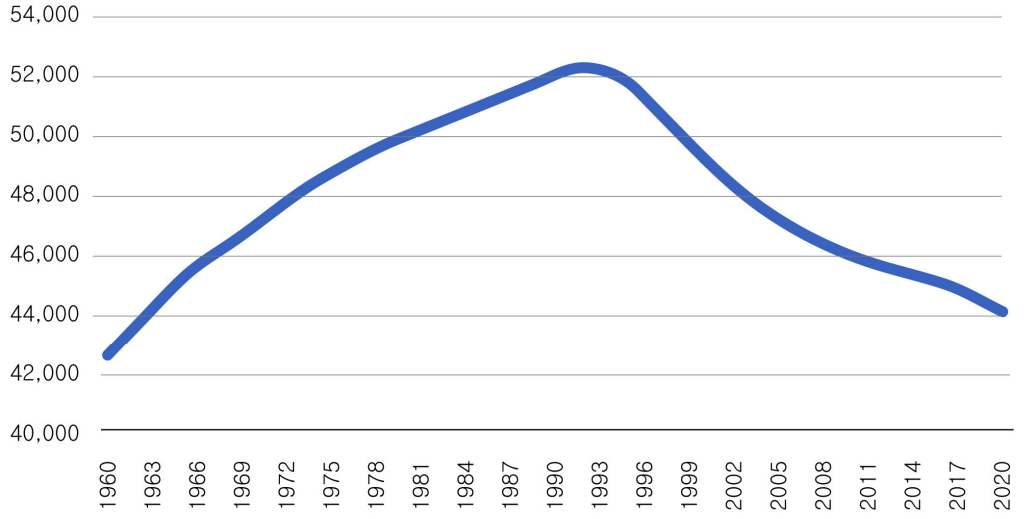
구분	품목명	수입금액	
		2020년	2021년
1	식물성유지	19	22
2	곡류	63	19
3	기타정밀화학원료	17	16
4	철광	10	12
5	기타난방및전열기기	16	1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우크라이나는 1993년 이후 경제난과 출산 기피, 인구유출 현상 등으로 인해 계속해서 인구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매년 평균 30만 명 정도의 인구 감소가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인구성장률은 -0.61%로 집계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민 평균수명은 남성의 경우 67.2세, 여성의 경우 76.8세이다. 우크라이나의 교육 수준은 사회주의 체제의 평등 이념에 따라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7년 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럽식 학제로의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2〉 우크라이나 인구 추이

단위: 천명



자료 : World Bank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POP.TOTL?end=2020&locations=UA&start=2000&view=chart)

우크라이나의 인간개발지수(HDI)는 2015년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0.78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체 188개국 중 74위를 차지하는 수준이다(UNDP 2020). 우크라이나에서 15세 이상 식자율(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은 100%에 달하며, 2019년 기준 영유아 사망률은 1,000명당 7.2명으로 집계된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안전한 식수 접근 가능 인구 비율은 2015년에서 2017년까지 90%를 웃도는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이에 비해 향상된 위생시설 사용 인구 비율은 60%대에 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5〉.

〈표 5〉 주요 사회지표 추이(2015~2019년)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수명	세	71.19	71.48	71.778	71.58	-
영유아 사망률(1,000명당)	명	8.1	7.9	7.6	7.4	7.2
식자율(15세이상)	%	100	100	100	100	100
인간개발지수(HDI)	-	0.765	-	0.771	0.774	0.779
안전한 식수 접근 가능 인구 비율	%	91.88	91.94	92.01	-	-
향상된 위생시설 사용 인구 비율	%	63.91	66.18	68.46	-	-

자료: World bank 및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3. 농업 및 농촌 현황

3.1. 농지

우크라이나의 농경지 면적은 2018년 기준 약 41만 3,290㎢로, 전체 국토의 약 70%를 차지한다. 2013년 이후 우크라이나의 농경지 면적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국토 면적 대비 농경지 면적 비중의 변화 또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표 6〉.

우크라이나는 비옥한 토양(흑토)을 바탕으로 세계 3대 곡창 지대로 꼽힌다. 특히 양질의 토양에서 생산되는 곡물은 우크라이나를 세계의 주요 곡물 수출국으로 만들고 있다. 더불어 유럽,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에 수출하기 유리한 지리적 환경에 놓여있음에 따라 상당한 농업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출은 원재료 수출에 편중되어 있고, 단위면적 당 생산성은 유럽, 미국 등 선진 농업국과 비교해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들 농지에 대한 관개 현황을 보면, 2013년 이후 전체 농업면적 대비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표 6〉.

〈표 6〉 농업면적 현황

구분	단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국토 면적(A)	㎢	603,550	603,550	603,550	603,550	603,550	603,550
농경지 면적(B)	㎢	415,260	415,110	415,080	415,150	414,890	413,290
농경지 면적 비중(B/A)	%	72	72	72	72	72	71
농경지 면적 대비 관개면적 비중	%	0.968	0.747	0.756	0.792	0.899	0.965

자료: World Bank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현재 우크라이나의 농경지의 약 75%는 개인 사유지, 나머지 25%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전통적으로 농업용 토지 사용권은 이전이 가능하나 소유권의 이전은 금지해 왔다(주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 2019a). 하지만 최근 농업용 토지매매 허용에 관한 법안이 공포되어 우크라이나 국민 및 법인들을 대상으로 매매가 허용(2021년 7월 1일 발효)되었다(주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 2020). 이로 인해 세계 다양한 국가 및 기업에서 우크라이나 농업 및 토지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농업지역은 크게 폴리시아(Polissya) 지역(포드졸 토[1]), 산림 스텝지역(흑토), 스텝지역(밤색토)으로 구분된다. 북서 지역에 분포한 폴리시아 지역은 저지대로, 모래와 높은 산성을 띠는 척박한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상대적으로 짧은 재배 시기를 갖는다. 동 지역은 곡물 및 공업용 작물을 재배하며, 축산업이 주로 이루어진다. 산림 스텝지역은 우크라이나 중앙부에 위치하며 대부분 산림지대이고, 전형적인 흑토로 구성되어 있다. 수분 보유력이 높은 비옥한 토양이며, 대륙성 기후를 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남쪽과 동쪽에 있는 스텝 지역은 밀과 곡물을 포함한 사탕무 등의 농작물 재배에 적합한 땅이다. 해당 지역은 전체적으로 온난한 기후를 띄며, 과일 및 채소 재배에 적합하나 가뭄의 위험이 있다 (European Commission 2012).

〈그림 3〉 우크라이나의 기후 지역

자료: European Commision (2012:14)

1) 냉대기후를 대표하는 토양으로 회색을 띤다.

3.2. 농업·농촌 인구

우크라이나는 1993년 이후 잦은 내전과 이민자의 급증,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감소 현상은 도시와 농촌 지역의 구분 없이 비슷하게 관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체 인구의 70%가량은 도시에, 나머지 30%는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전체 인구 대비 도시의 인구는 농촌 인구의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며, 농촌 인구의 감소율은 2019년 기준 약 -0.93%로 도시 인구 감소율(-0.36%)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7〉. 이러한 인구감소 현상은 우크라이나 노동 및 경제 활동인구의 감소로, 농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인해 향후 인구감소와 기반시설의 파괴 및 농업생산 중단 등으로 농업의 축소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인근 주변국의 농업시장에 비해 낮은 인건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한 저렴한 농업 생산비는 유럽의 인근 국가에 비해 우크라이나의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NICU 2018).

〈표 7〉 농촌 및 도시 인구 현황

구분	단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도시	천 명	31,331	31,223	31,184	31,123	31,044	30,947	30,836
전체 인구 대비 도시 인구비중	%	68.9	68.9	69.1	69.2	69.2	69.4	69.5
농촌	천 명	14,159	14,049	13,970	13,882	13,787	13,676	13,550
전체 인구 대비 농촌 인구비중	%	31.1	31.0	30.9	30.8	30.8	30.6	30.5

자료: FAOSTAT 웹사이트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우크라이나의 전체 인구 대비 고용률은 2013년 이후 5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전체 고용인구 대비 서비스업, 산업, 농업 관련 고용인구 비중을 보면, 서비스업이 61.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농업종사자의 고용 비중은 13.8%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농업종사자 인구 비중은 2013년 20%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표 8〉.

〈표 8〉 산업별 고용인구 비중 추이

구분	단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인구	천명	45,490	45,272	45,154	45,005	44,831	44,623	44,385
총인구 대비 고용률	%	51.67	49.40	49.76	49.46	49.33	49.57	49.72
전체 고용인구 대비 서비스업 종사자 고용 비중	%	55.18	59.08	60.05	60.15	60.29	60.96	61.22
전체 고용인구 대비 산업 종사자 고용 비중	%	24.81	26.15	24.69	24.25	24.3	24.61	24.96
전체 고용인구 대비 농업 종사자 고용 비중	%	20.01	14.77	15.26	15.6	15.41	14.42	13.82

자료: World Bank Data 및 FRED 웹사이트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3.3. 농산물 교역

농업은 우크라이나의 주요 외화 수입 원천이다. 2018년 기준 우크라이나의 수출 품목별 비중을 보면, 농업 원자재(2%)와 식품(39.1%) 등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1%에 달하고 있다. 특히, 동기간 제조와 연료의 비중이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감소분 대부분은 식품의 수출 증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은 2010년 대비 약 2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9〉.

〈표 9〉 우크라이나의 수출 품목별 비중

단위 :%

구분	2010년	2018년
광물	8.1	9.4
제조	63.7	47.2
농업 원자재	1.1	2.0
연료	7.1	1.8
식품	19.2	39.1

자료: World Bank Data 웹사이트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2018년 기준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수출액은 곡물(HS:10), 동식물성 유지(HS:15), 채유용 종자·과실, 공업·의약용 식물, 사료식물식품(HS:12), 식품웨이스트·조제사료(HS:23), 육류(HS:02) 순으로 높았다. 2018년 기준 우크라이나 농산물 주요 수출국은 곡물(HS:10)은 주로 이집트, 스페인, 네덜란드, 중국 등으로 나타났으며, 동식물성 유지(HS:15)의 경우 인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며 중국이 그 뒤를 잇는다. 또한 채유용 종자·과실, 공업·의약용 식물, 사료식물식품(HS:12)의 경우 독일, 터키, 벨기에 순으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2018년 기준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액은 과실·견과류(HS:08), 음료·주류·식초(HS:22), 연초류(HS:24), 기타조제식료품(HS:21), 채유용 종자·과실, 공업·의약용 식물, 사료식물(HS:1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10〉. 우크라이나는 2018년 기준 터키,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등으로부터 과실 및 견과류(HS:08)를 수입하고 있으며, 조지아, 이탈리아, 독일 등으로부터 음료·주류·식초(HS:22)를 주로 수입하고 있다. 또한 연초류(HS:24)의 경우 이탈리아, 독일, 브라질, 말라위로 순으로 수입을 많이 하고 있으며, 사료식물(HS:12)의 경우 터키, 미국, 프랑스로부터 주로 수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출입 현황(2018년)

단위 : 달러

HS 코드	품목	수출액	수입액
01	산동물	45,786,563	71,823,567
02	육류	645,939,107	167,663,221
04	낙농품	480,945,094	106,422,604
05	기타동물성생산품	12,940,581	22,509,275
06	산수목·꽃	4,442,805	33,976,977
07	채소	235,682,741	106,191,280
08	과실·견과류	228,558,201	526,690,308
09	커피·차·향신료	12,059,236	209,046,039
10	곡물	7,240,557,676	191,103,453
11	제분공업생산품	175,799,193	34,338,770
12	채유용 종자·과실, 공업·의약용 식물, 사료식물	1,954,149,764	397,429,193
13	식물성 액즙	1,090,694	29,653,864
14	기타식물성생산품	33,701,859	760,672
15	동식물성 유지	4,496,510,969	267,350,203
16	육류·어류 조제품	21,742,499	97,248,897
17	당류·설탕과자	366,878,091	67,116,606
18	코코아	204,061,145	306,699,200
19	곡물·곡분의 조제품	268,303,551	153,607,639
20	채소·과실의 조제품	172,282,334	181,369,300
21	기타조제식료품	131,984,340	408,113,916
22	음료·주류·식초	229,633,582	489,582,911
23	식품웨이스트·조제사료	1,224,764,246	216,176,513
24	연초류	398,709,065	420,759,928
	계	4,505,634,336	18,586,523,336

주: 농식품은 HS 01~24류(단, 03류 어류제외).
자료: UN Comtrade를 토대로 저자 작성.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교역 현황은 〈표 11〉과 같다. 2018년 기준 우크라이나는 한국으로 곡물(HS:10), 동식물성 유지(HS:15), 식품웨이스트·조제사료(HS:23), 낙농품(HS:04) 등을 수출하는 반면, 한국으로부터 연초류(HS:24), 기타조제식료품(HS:21), 채유용 종자·과실. 공업·의약용 식물, 사료식물(HS:12), 곡물·곡분의 조제품(HS:19), 채소·과실의 조제품(HS:20) 등을 수입해오고 있다.

〈표 11〉 우크라이나의 대(對)한국 농산물 수출입 현황(2018년)

수출품목(HS 코드)	수출액(USD)	수입품목(HS 코드)	수입액(USD)
곡물(10)	175,554,065	연초류(24)	1,064,640
동식물성 유지(15)	6,263,656	기타조제식료품(21)	660,985
식품웨이스트·조제사료(23)	5,936,228	채유용 종자·과실, 공업·의약용 식물, 사료식물(12)	401,148
낙농품(04)	2,051,950	곡물·곡분의 조제품(19)	167,776
채유용 종자·과실, 공업·의약용 식물, 사료식물(12)	478,665	채소·과실의 조제품(20)	107,228
음료·주류·식초(22)	362,385	식물성 액즙(13)	83,189
육류·어류 조제품(16)	125,607	음료·주류·식초(22)	79,097
채소·과실의 조제품(20)	119,414	육류·어류 조제품(16)	45,696
곡물·곡분의 조제품(19)	92,110	식품웨이스트·조제사료(23)	5,720
코코아(18)	80,816	당류·설탕과자(17)	5,169
제분공업생산품(11)	66,487	커피·차·향신료(09)	4,317
기타조제식료품(21)	43,272	동식물성 유지(15)	2,843
당류·설탕과자(17)	31,875	산동물(01)	1,207
산동물(01)	22,666	채소(07)	320
연초류(24)	7,216		
기타식물성생산품(14)	6,170		
기타동물성생산품(05)	6,124		
육류(02)	5,713		
채소(07)	1,124		
합계	191,255,543	합계	2,629,335

자료: UN Comtrade를 토대로 저자 작성.

3.4. 농업 생산

농업은 우크라이나의 최대 수출 산업이다. 우크라이나의 농업 생산은 크게 기업농과 가족농으로 구성된다. 기업농의 경우 우크라이나 농업 총생산량의 55%를 담당하며 약 4만 5,000개 기업이 영농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가족농의 경우 평균 1.23ha의 토지를 경작하는 400만 이상의 가구로 구성되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체 농업 생산량의 4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우크라이나의 주요 농산물은 옥수수, 밀, 감자, 해바라기 씨, 사탕무, 보리, 대두, 유채씨 등이 있다. 곡물과 식물성 기름의 생산은 우크라이나 농업 생산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NICU 2018). 특히 옥수수, 밀, 감자 등의 식량작물의 경우 우크라이나의 생산작물 상위 3개 품목을 차지하며 그 생산량은 2,000만 톤을 넘는 것으로 집계된다〈표 12〉. 따라서 본 절에서는 우크라이나 주요 농산물의 생산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2〉 상위 10위 주요 생산작물

단위: 톤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옥수수	23,327,570	28,074,610	24,668,750	35,801,050	35,880,050
밀	26,532,100	26,098,830	26,208,980	24,652,840	28,370,280
감자	20,839,270	21,750,290	22,208,220	22,503,970	20,269,190
해바라기 씨	11,181,120	13,626,890	12,235,520	14,165,170	15,254,120
사탕무	10,330,750	14,011,300	14,881,550	13,967,700	10,204,530
보리	8,288,380	9,435,710	8,284,890	7,349,140	8,916,780
대두	3,930,600	4,276,990	3,899,370	4,460,770	3,698,710
유채 씨	1,737,600	1,153,910	2,194,790	2,750,600	3,280,320
토마토	2,274,410	2,229,690	2,267,460	2,324,070	2,224,440
양배추 및 기타 브라시카류	1,651,760	1,656,440	1,673,360	1,650,760	1,732,920

자료: FAOSTAT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3.4.1. 옥수수

스텝 북부지역과 산림 스텝지역의 남부에서 주로 재배되는 옥수수는 높은 수확량을 나타내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재배면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량의 경우 연도에 따라 증감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지만, 2018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표 13〉. 역사적으로 유럽연합을 비롯하여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 옥수수 수출에서 주요한 교역 상대국이었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수출 교역을 확대하며, 특히 중국에 많은 양의 옥수수를 수출하고 있다.

〈표 13〉 옥수수 수확 면적 및 생산량

단위: ha, 톤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확 면적	4,083,500	4,252,200	4,480,700	4,564,200	4,986,900
생산량	23,327,570	28,074,610	24,668,750	35,801,050	35,880,050

자료: FAOSTAT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생산량 증가에 대하여 FAO와 OECD는 2025년까지 옥수수 생산 면적과 생산량의 증가 수준이 점차 둔화 및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남부 및 동부지역의 농업 관개수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북부 및 서부 지역의 낮은 기온으로 인한 옥수수 재배에 적합한 적정 온도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움에 따른 결과이다. 따라서 적합한 옥수수 재배종의 선택과 관개시설 개발에 대한 투자는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된다.

3.4.2. 밀

우크라이나의 밀재배는 2018년 생산량이 2,465만 톤으로 하락하였다가 다시 2,800만 톤을 웃도는 높은 생산량을 보인다. 수확 면적의 경우, 2016년은 전년 대비 약 63만 7,700ha 가량으로 감소하였으나,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표 14〉. 우크라이나의 밀 재배는 주로 산림 스텝지역과 스텝지역에서 재배된다. 해당 지역은 겨울철 얕게 눈이 덮이는 지역으로, 봄 밀이 재배되는데 이는 냉해를 입을 수 있는 겨울 밀을 대체하는 작물로 재배되는 것이다.

〈표 14〉 밀 수확 면적 및 생산량

단위: ha, 톤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확 면적	6,839,500	6,205,800	6,377,400	6,619,600	6,825,300
생산량	26,532,100	26,098,830	26,208,980	24,652,840	28,370,280

자료: FAOSTAT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밀은 우크라이나 식량안보에 주요한 작물로써, 생산량 감소, 가격조절 등 해당 작물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빈번하다. 특히 밀 수확 면적의 변동은 주로 가을 파종기의 기후 조건, 투입물의 가격 및 생산 수익성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우크라이나의 수확 면적 대비 밀 생산량은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의 수확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밀 재배 환경의 개선을 통해 생산효율 증대와 품질 향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3.4.3. 감자

우크라이나는 감자의 생산량 측면에서 세계 3대 생산국 중 하나로, 우크라이나의 주요 농산물 중 하나로 꼽힌다. 우크라이나에서 감자는 전체 수확량의 94%가 기업농이 아닌 농촌 지역의 가족농에 의해 재배된다. 우크라이나의 전역에 걸쳐 생산되지만, 폴리시아와 산림 스텝지역에서 재배 및 수확량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감자는 주로 식량, 동물사료, 가공식품 등으로 이용되며, 생산량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감자는 시장 도매가격이 낮고, 높은 강도의 노동력을 요구하는 작물 특성으로 인해 대규모 감자 생산은 어려운 실정이다(Мельник 외 2017).

〈표 15〉 수확 면적 및 생산량

단위: ha, 톤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확 면적	1,291,000	1,311,600	1,323,200	1,319,900	1,308,800
생산량	20,839,270	21,750,290	22,208,220	22,503,970	20,269,190

자료: FAOSTAT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2].

2) FAOSTAT(http://www.fao.org/faostat/en/#data/QC: 2021. 4. 23.)

우크라이나의 감자 재배면적은 약 130만 ha를 웃돌며 비교적 균일한 수확 면적을 갖고 있으나, 옥수수와 밀, 보리 등 기타 우크라이나 주요 식량작물들에 비해 적은 범위의 재배면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감자 생산량 또한 2015년 이후 꾸준히 2,000만 톤을 웃돌며 큰 변동 폭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표 15〉.

3.4.4. 사탕무

사탕무는 열, 빛, 습도, 비옥한 토양을 요구하는 재배 조건으로 인해 산림 스텝지대와 스텝 북부지대에서 주로 재배되며, 전체 생산의 78% 정도가 기업농에 의해 재배되고 있다(World Bank 2013; European Commission 2012). 우크라이나 사탕무는 CIS[3] 국가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 관세 및 쿼터가 부과되고 있음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에서 보호 및 관리하는 농산물 중 하나이다(Stiftung Wissenschaft and Politik 2017).

우크라이나의 사탕무 생산 면적은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부터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며, 생산량 또한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표 16〉.

〈표 16〉 사탕무 수확 면적 및 생산량

단위: ha, 톤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확 면적	237,000	291,100	313,600	274,700	221,300
생산량	10,330,750	14,011,300	14,881,550	13,967,700	10,204,530

자료: FAOSTAT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3.4.5. 보리

우크라이나의 보리는 수익성이 높은 옥수수에 비해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저조하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재배 품목 중 하나로 여겨진다(FAO 2016). 우크라이나 보리는 다양한 지역에 걸쳐 재배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남부지역에서 재배 및 생산된다.

3)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를 의미함. 소련 해체로 인해 독립국이 된 소련 공화국들의 연합체로 독립국가연합으로 1992년 설립됨. 러시아, 몰도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이 있음.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는 각각 2014년, 2009년 탈퇴하였음.

〈표 17〉 보리 수확 면적 및 생산량

단위: ha, 톤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확 면적	2,805,200	2,859,200	2,501,500	2,484,300	2,609,200
생산량	8,288,380	9,435,710	8,284,890	7,349,140	8,916,780

자료: FAOSTAT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우크라이나의 보리 수확 면적 및 생산량은 2017년도에서 2018년 사이 감소하다가, 2019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표 17〉. 보리는 급격한 기후변화로부터의 낮은 저항성을 갖고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보리 수확량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적은 재배 비용과 비교적 짧은 재배 기간을 갖는 보리는 재배 선호 작물 중 하나로 꼽힌다.

3.4.6. 유지작물(해바라기씨, 대두, 유채씨)

우크라이나 농업에서 유지작물은 곡물 다음으로 주요한 생산물이며, 주요 작물로는 해바라기 씨, 대두, 유채씨 등이 있다. 우크라이나는 아르헨티나와 함께 세계에서 해바라기 씨(해바라기 유) 최대 생산국이다. 우크라이나의 해바라기 씨는 스텝 지대와 남쪽 산림 스텝지대에서 주로 재배되며, 해바라기 생산의 79%가 대규모 기업농에 의해 생산된다. 우크라이나의 해바라기 씨는 우크라이나 유지작물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대부분 기름으로 가공되어 수출된다(NICU 2018).

〈표 18〉 해바라기 씨 수확 면적 및 생산량

단위: ha, 톤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확 면적	5,166,200	6,086,700	6,060,700	6,166,500	5,958,900
생산량	11,181,120	13,626,890	12,235,520	14,165,170	15,254,120

자료: FAOSTAT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우크라이나의 해바라기 씨 재배면적은 2019년 기준 약 595만 ha로 전년도 대비 약 20만 ha 감소하였다. 해바라기 씨 생산량은 2015년(1,100만 톤)에서 2019년(1,500만 톤)까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18〉.

대두는 해바라기 씨를 비롯하여 우크라이나의 주요 유지작물로 재배되고 있으며,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이다. 대두의 수확 면적은 2015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반면, 생산량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대두의 생산은 기온, 강수량 등 기후와 농업 환경 등 외부적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기준 약 160만 ha 이상의 재배면적에서 369만 톤 이상의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다〈표 19〉.

〈표 19〉 대두 수확 면적 및 생산량

단위: ha, 톤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확 면적	2,135,600	1,859,400	1,981,900	1,728,700	1,612,800
생산량	3,930,600	4,276,990	3,899,370	4,460,770	3,698,710

자료: FAOSTAT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유채씨는 가공되지 않은 원재료로 주로 수출되고 있으나, 최근 대두와 유채씨 등에 농산물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다양한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NICU 2018). 2015년 이후 유채씨의 수확 면적은 2016년 감소하였다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수확 면적은 128만 ha, 생산량은 328만 톤에 달하고 있다.

〈표 20〉 유채씨 수확 면적 및 생산량

단위: ha, 톤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확 면적	671,100	449,300	785,700	1,039,300	1,279,200
생산량	1,737,600	1,153,910	2,194,790	2,750,600	3,280,320

자료: FAOSTAT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3.4.7. 축산

2019년 기준 우크라이나의 소 사육두수는 약 333만 마리, 돼지는 약 600만 마리, 닭은 약 1억 9,000만 마리로 집계되고 있다〈표 21〉. 우크라이나의 가축 사육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축 수출도 감소하고 있다. 소는 식용과 낙농의 목적으로 사육되는데, 사료비의 증가 등 생산성의 상승으로 인해 소 사육 농가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우유 생산의 74.9%는 농촌 지역의 가족농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고 생산효율이 낮은 등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방목 면적 감소 등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낙농업 시장은 앞으로도 위축될 전망이다. 돼지 또한 2015년 이후 사육 두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양돈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이 또한 생산원가의 상승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USDA 2021). 한편, 우크라이나의 닭과 오리를 비롯한 가금류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 주요 가축 사육 현황

단위: 마리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나귀	11,937	11,881	11,914	11,902	11,889
벌집	2,700	2,600	2,487	2,642	2,601
낙타	813	831	828	832	836
소	3,884,000	3,750,000	3,682,300	3,530,800	3,332,900
닭(천 마리)	193,885	186,354	184,336	186,737	191,968
오리(천 마리)	11,310	10,150	10,876	10,954	11,680
거위 및 기타 가금류(천 마리)	5,365	5,115	4,183	4,117	4,160
염소	585,300	581,400	595,900	582,100	570,100
말	316,800	305,800	291,500	264,900	244,000
돼지	7,350,700	7,079,000	6,669,100	6,109,900	6,025,300
토끼(천 마리)	5,141	5,043	4,940	4,770	4,700
양	785,800	743,900	718,900	727,200	698,500
칠면조(천 마리)	2,115	1,825	1,575	1,951	1,707

자료: FAOSTAT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참고문헌

European Commission. 2012. "Farming and rural development in Ukraine: making dualisation work". *JRC Scientific and Policy Reports.* Joint Research Centre. Institute for Prospective Technological Studies.

FAO. 2014. "Developing sustainable food calue chains: Guiding principles."

FAO. 2016. "Ukraine: Grain Sector Review".

National Investment Council of Ukraine(NICU). 2018. "Agricultural sector of Ukraine: Securing the global food supply".

OECD Eurasia. 2015. "Review of Agricultural Investment Policies of Ukraine".

Stiftung Wissenschaft und Politik. 2017. "Agriculture in Ukraine: Economic and Political Frameworks".

USDA. 2021. "Livestock and Products Semi-annual".

World Bank. 2013. "Ukraine Agricultural Policy Review".

Мельник, С. І., Ковчі, А. Л., Стефківська, Ю. Л., Кравчук, О. О., & Горицька, Т. В. 2017. "Potato market in Ukraine". *Plant Varieties Studying and Protection.* 13(2), 206–210. https://doi.org/10.21498/2518-1017.13.2.2017.105419.

박정호. 2011.『동스라브 민족의 고향, 성스러운 도시 키예프』. 국토연구원.

성진근. 2013. "우크라이나의 농업 현안 과제와 한국의 투자 진출전략."『세계농업』. 153호 (2013.5).

외교부. 2020. "우크라이나 개황".『외교간행물』.

주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 2019a. "토지소유권 제도 현황 및 전망." 대사관 웹페이지 경제통상 진출길라잡이 자료.

주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 2019b. "우크라이나 농업용 토지 매매허용 추진현황/전망 및 시사점." 대사관 웹페이지 경제통상 진출길라잡이 자료.

주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 2020. "우크라이나 농업용 토지 매매 허용법 공포." 대사관 웹페이지 경제통상 진출길라잡이 자료.

주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 2021a. "약사." 대사관 웹페이지 우크라이나개황 자료.

주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 2021b. "정치." 대사관 웹페이지 우크라이나개황 자료.

차원규, 이성은. 2021.『농림업 분야 중점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4차년도): 우크라이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참고사이트

대한무역투자진흥사(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4/globalBbsDataView.do?setIdx=403&dataIdx=178203) (검색일: 2021.04.1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https://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Main.do?natnSn=126) (검색일: 2021.04.15.)

FAOSTAT(http://www.fao.org/faostat/en/#data/QC) (검색일: 2021.4.23.)

FAOSTAT(https://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1.4.18.)

Fconsult(https://fconsult.kiev.ua/agriculture/) (검색일: 2021.4.23.)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https://www.trade.gov/knowledge-product/ukraine-agricultural-sector) (검색일: 2021.4.23.)

Kiev(https://ko.maps-kiev.com/키예프-우크라이나-지도) (검색일: 2021.4.8.)

UN Comtrade(http://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1.4.23.)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http://hdr.undp.org/en/content/latest-human-development-index-ranking) (검색일: 2021.4.16.)

World Bank Data(https://data.worldbank.org) (검색일: 2021.4.21.)

World Bank(https://data.worldbank.org/country/ukraine) (검색일: 2021.4.16.)

World Population Review(https://worldpopulationreview.com/) (검색일: 2021.4.16.)